

## 부산광역시 동래구 코로나-19 지역사회 초기대응 사례보고

고광욱<sup>1)</sup>, 김혜숙<sup>2)</sup>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sup>1)</sup>,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sup>2)</sup>

### Community-wide Early Response to COVID-19 in Dongnae-gu of Busan City

Kwang-wook Koh<sup>1)</sup>, Hye-Sook Kim<sup>2)</sup>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sin University<sup>1)</sup>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Daegu Health College<sup>2)</sup>

#### = Abstract =

**Objectives:** We did this study to summarize and review and characterize the community-wide early response to COVID-19 in Dongnae-gu of Busan Metropolitan City where first confirmed case of COVID-19 occurred in Busan.

**Methods:** Research team from college of medicine participated as advisor to response team of local government. Research team consulted and educated and interviewed response team and wrote and reviewed COVID-19 white paper of local government.

**Results:** Political commitment of District mayor made possible community-wide co-operation between public-private section. Early mobilization of District-wide resource was possible through political commitment. Whole-of-government response developed to whole-of-society approach including economic support.

**Conclusions:** Proactive community-wide response were mobilized under commitment of city mayor of local government to address the first COVID-19 incidence in Busan Metropolitan City.

**Key words:** COVID-19, Community-wide, Political commitment

---

\* Received June 7, 2021; Revised September 16, 2021; Accepted September 17, 2021.

\* Corresponding author: 김혜숙, 대구시 북구 영송로 15,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Hye-Sook Kim,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15 Youngsong-Ro, Buk-Gu, Daegu Health College, 41453, South Korea

Tel: +82-53-320-1372, Fax: +82-53-320-1370, E-mail: rain25@daum.net

## 서론

전례 없는 자연의 침범과 심화되는 인구의 밀집과 빠른 이동 등은 지구온난화와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감염병의 범지구적 유행은 갈수록 더 잦아지고 있다[1]. 중세 유럽 인구의 1/3을 사망시킨 제2차 페스트 대유행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몰살시킨 천연두, 7차에 걸친 콜레라 대유행과 발진티푸스, 수천만 명이 사망한 스페인 독감 등 인류를 괴롭혀온 감염병은 근래 들어서도 홍콩독감, 신종플루, 코로나19 등 팬데믹을 초래하고 있다[2].

부산광역시의 코로나-19 발생은 2000년 2월 21일 2명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7월 23일에는 159명에 이르렀는데 부산광역시의 16개 구군 중 동래구 확진자가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2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26명이 확진되었고 3월달에는 8명이 산발적으로 확진되었고 4월에 3명, 5월에 2명, 6월에 1명으로 감염이 줄어들었다[3]. 2020년 연초의 짧은 기간에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하였고 동래구에서도 2월 대구경북의 대규모 집단감염에 이어 부산에서 처음으로 온천교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되자 즉시 확진자 소재 파악 후 병원 이송, 방문지 방역, 접촉자 격리조치 등 빠른 대응조치를 하고 늦은 밤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확산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설치 등 대응방안 논의 등 총력체제에 돌입하였다.

수도권이나 대구 경북지역에서 처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부산광역시 최초의 코로나-19환자가 동래구로 유입되고 확진되는 등 지역사회에 대응선례가 적고 관련 지침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는 구청장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획실과 보건소가 협력하여 초기부터 선제적 대응을 하여 2020년 1월에 대한민국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동래구도 초기 대응에 나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동래구 전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에서도 지역사회의 역량과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 지침과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방향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높아 동래구 차원에서 2020 부산광역시 동래구 코로나-19 대응백서를 제작하고 또 이 사례보고를 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자명한 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위기 극복의 결집된 힘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하려면 사태의 발생과 대응에 대한 전 과정의 기록을 통해 되짚어보고 유사한 사태가 발생 하였을 때 체계적인 사전대응에 실제 활용 가능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사례보고를 하고자 하였다.

## 대상 및 방법

2020년 2월 26명, 3월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기획실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자문과 도움을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 요청하여 연구자들은 4월과 5월에 걸쳐 구청장 면담 및 기획실 회의 참석, 간부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한후 6월에서 7월에 걸친 2020 부산광역시 동래구 코로나 19 대응 백서 제작에 참여했다.

자료 활용은 백서제작을 위한 2020년 1월에서 7월까지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였고 대상 및 방법은 기획실과 보건소의 전·현직 담당자들과의 면담이었다. 여러 차례의 전화면담이 추가로 시행되었다.

## 결과

### 1. 동래구 확진자 발생 현황과 경과

동래구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2월 하순에 26명이 집중 발생하였고 3월달에는 8명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첫 확진자는 온천교회 수련회 참가자로 확인되어 수련회 참가자 130여 명과 온천교회 교인 1,118여 명의 전수조사가 진행되었고,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 검체채취자 1000여 명에 대한 선제적 자가격리 조치를 하면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신도 등과 접촉이 의심되는 주민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전담공무원 지정 모니터링, 신천지 관련시설 폐쇄, 종교시설 전담 관리반 투입 집회 중지 설득 및 현장점검 강화 등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에 주력하여 7월말까지 지역 내 확진자 모두 완쾌되었다[4]. 동래구 확진자 일자별 발생추이를

살펴 본 결과 2020년 7월 23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확진자의 약 1/4을 차지하였다(Figure 1).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았다(Figure 2).

## 2. 동래구 확진자 관계도

동래구의 첫 확진자는 온천교회의 학생으로 2월 21일에 확진되어 온천교회에 32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쓰리제이에듀학원에 4명과 PC방에 2명의 확진자로 확산되었고 10명의 해외유입 확진자와 타시도 확진자로부터의 감염되어 확진된 자도 7명이 있었다(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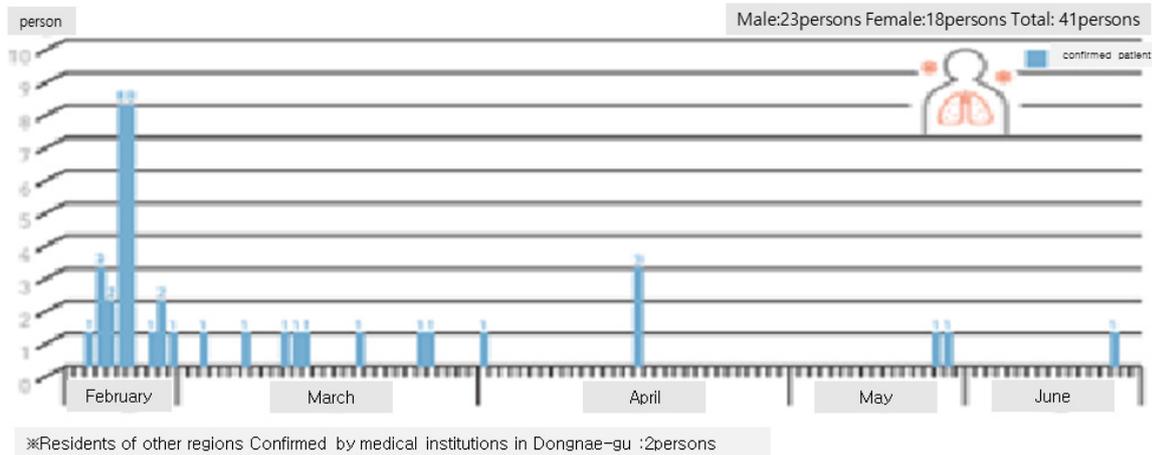


Figure 1. Incidence of COVID-19 in Dongnae-g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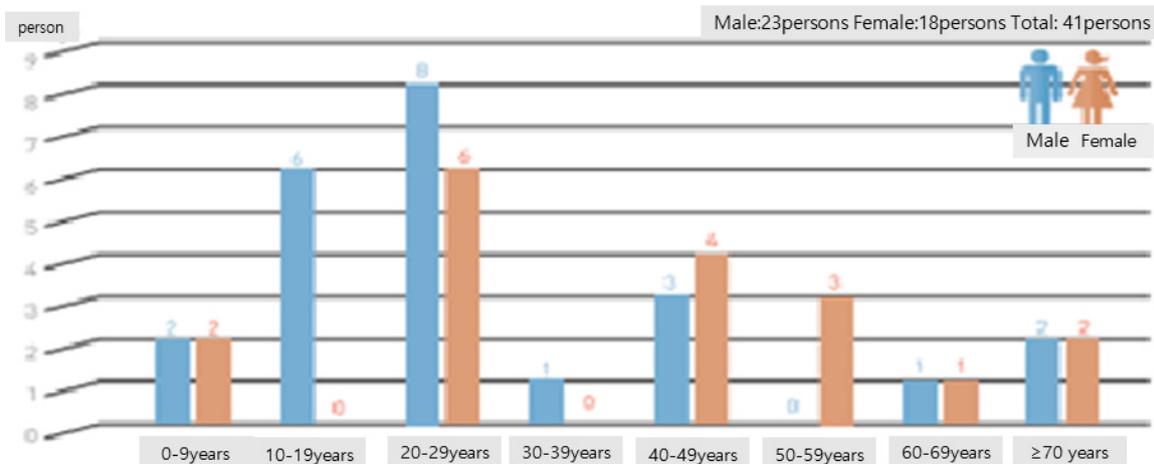


Figure 2. Age and sex distribution of COVID-19 patient in Dongnae-g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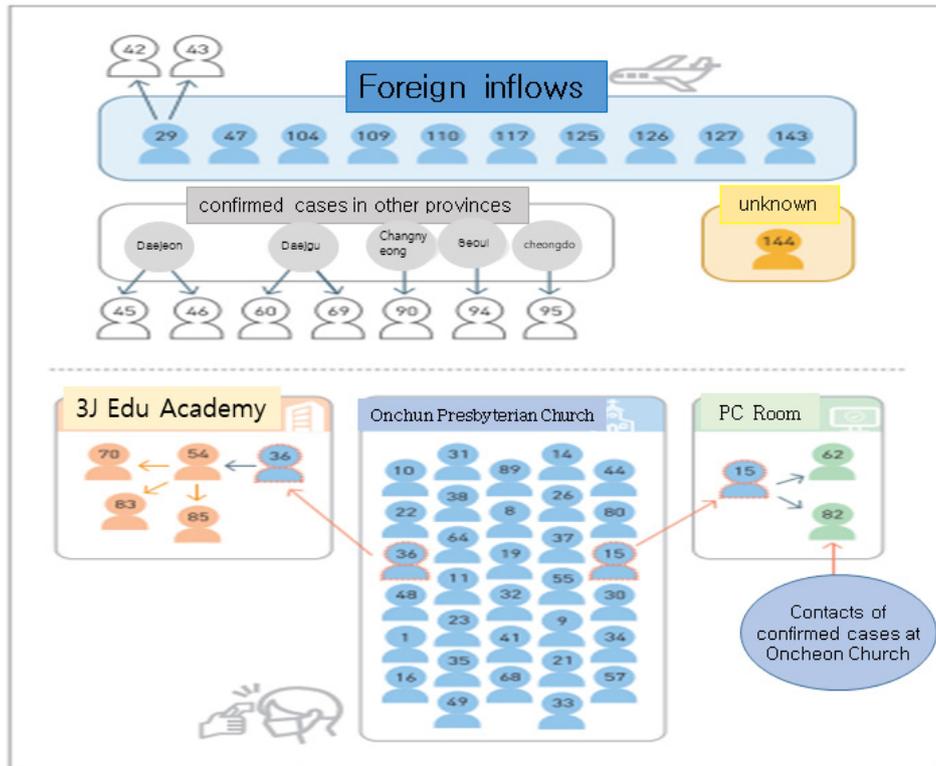


Figure 3. Dongnae-gu confirmed patient relationship map

### 3. 동래구 코로나 대응

동래구의 선제적, 예방적 코로나-19 대응의 특징은 (Table 1)과 같다. 확진자 발생에 대한 통합대응에는 기획감사실을 중심으로 동래구청 본청 거의 모든 부서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자와 구민의 전폭적 참여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으로는 동래구 비상경제대책본부 설치로 경제살리기, 동래구 긴급재난지원금 ‘동래사랑 경제활성화카드’ 지원,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연수생 채용, 동래구 비상경제대책본부 ‘동소동락’ 홈페이지 구축, 경제위기 극복에 손 내민 착한 임대인 사례 등이 특징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지원대책으로는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65세 이상 자가격리자 비상식량세트 배부, 코로나19 긴급지원비 대상 확대, 기초수급자 한시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이 있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감염증 확

진자가 발생하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동래구는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 역에 대한 방역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동래구 보건소에 비상방역대책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였다. 또한, 명륜동 소재 대동병원과 동래구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코로나 19감염증 사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다. 2020년 1월 31일 구청장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방역지원반, 홍보지원반 등 총 4개 반 구성과 임무부여와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전 직원 비상상황근무를 실시하였다. 구청장 주재 긴급대책회의는 국·소장 이상 간부와 동래구 전 부서장이 모두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로, 7월 23일 현재까지 17차 종합대책회의와 여러 차례 수시 긴급상황대책회의를 통해 확산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논의하고 실행하고 있다.

Table 1. Response to COVID-19 in Dongnae-gu

No	Case	Response status
1	2020.1. First confirmed case of COVID-19 in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ongnae-gu Disaster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started operation</li> <li>- Infection prevention by installing a fever detector, checking the temperature of the entrants, and installing an automatic hand sanitizer</li> <li>- Prevention of multiple gathering areas and vulnerable areas</li> <li>- Decision to cancel all major events</li> </ul>
2	First confirmed case in Dongnae-g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n February 21, the test result of the suspected patient was 'positive'</li> <li>- Identify the whereabouts of the confirmed person immediately and put health center experts in the restaurant</li> <li>- Transfer to Busan Medical Center, a national negative pressure ward</li> <li>- Measures to close the restaurant and quarantine the movement</li> <li>- Discussion of countermeasures against spread by holding emergency countermeasures meeting at night on February 21st</li> </ul>
3	Onchun Presbyterian Church Group of confirmed ca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plete survey of all participants and members of the retreat</li> <li>- Efforts to prevent spread through close contact testing</li> <li>- 1:1 dedicated management for subjects after testing</li> <li>- Pre-blocking concerns about transmission by monitoring designated by public officials and guiding daily life rules</li> <li>- Closed 3 Shincheonji-related facilities that can act as a mediator for group outbreaks</li> <li>- Recommendation to stop face-to-face worship at religious facilities</li> <li>- Support for preemptive purchase of masks for those vulnerable to infectious diseases</li> </ul>
4	Support for preemptive purchase of masks for the vulnerable to infectious disea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rch 2, KF95 masks provided to 48,000 senior citizens over 65 who are vulnerable to viruses and other immune systems.</li> <li>- On March 10, KF94 masks and hand sanitizer were provided to about 1,000 pregnant women living in Dongnae-gu.</li> </ul>
5	Simultaneous public-private joint quarant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rticipation in joint quarantine for the entire Dongnae-gu area</li> </ul>
6	A visit to a government office by a confirmed pati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vid-19 testing and self-quarantine measures for employees who received face-to-face counseling</li> <li>- Conducted several quarantines for the entire old office building</li> </ul>
7	First death among confirmed cases in Bus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dministrative support for cremation and funeral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related laws and guidance to the bereaved family</li> </ul>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동래구청 등 관공서에 전염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청사담당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주기적으로 청사 내 방역을 실시하였고, 출입구 4개소 중 3개소를 폐쇄하고 1개소로 일원화시켰다. 또한 국민의 안전한 방문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주출입구에 발열감지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였으며, 청사 내외부에 대한 수시 방역으로 청사방역관리에 집중하였다. 만일의 상황 대비를 위해 직원 중 중국 등 해외여행 경력이 있는 직원도 전수조사하여 입국 14일 이내 발열 등 증상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다. 모든 방문자는 청사방문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민원응대 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민원대에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민원응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구내식당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이용시간 조정과 한 방향으로만 착석하도록 개선하여 식사 중에 직원들 간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부산시 소독 및 방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관내 사업체에 코로나-19 예방안내자료 및 포스터를 배부하여 지역감염 예방에 힘썼다. 일반음식점, 숙박업, 목욕탕업 등 환경위생분야에서는 관내 500㎡ 이상 일반음식점 25개소, 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 16개소, 1,000㎡ 이상 공중위생업소 53개소, 소규모 위생업소 400개소 등 총 494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포스터 2,000매 및 손소독제 500개를 제작·구입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다. 또한, 중국 1차~3차 긴급상황대책 회의에서는 관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부서·동별 사전 대응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 및 논의를 하여, 확진자 발생 시 신속히 행정절차 등 대응할 수 있도록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 부서·동에서는 시설 내 직원, 방문 민원 등에 대하여 손소독제 비치 및 직원 개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직원 등 근무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방역지침 교육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이 자주 찾는 동래읍성도서관, 안락누리도서관, 정보화사업장, 동래구 진로교육

지원센터, 평생학습관의 경우 각 시설에 의무적으로 손소독제, 마스크를 비치하고, 상반기 프로그램 개강을 연기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합숙형 프로그램의 경우 계획되었던 일정을 전면 취소하는 등 혹시 모를 지역 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동래구 문화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는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구립 옥샘여성합창단 등의 공연연습을 무기한 연기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동래구 사회복지시설 68개소의 종사자 800여 명의 최근 해외 출국 이력을 전수조사하여 중국 등을 방문하거나 경유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하였다.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먼저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발열 아동감지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최근 해외출입자를 조사하여 귀가조치 시키고,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및 마스크, 손소독제를 배부하는 등 사전 대응을 하였으며, 동래구노인회지와 협의하여 전체 경로당에 손소독제를 배부하였다. 또한, 드림스타트 등 아동복지시설에도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구입하여 배부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경제분야에서는 관내 전통시장에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시장 점포 이용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수칙에 대한 안내방송 실시, 계산판에 예방수칙 포스터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대형마트 등 점포 시설 출입구 손잡이, 카트, 무빙워크 핸드레일에 방역 패드 등을 부착하여 상체류 중인 국민이 전용기를 통해 우리나라로 입국하면서 동래구에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자가격리자 전담반을 편성하여 1:1관리, 고위험군 기초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등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 찰

서울특별시 코로나-19백서에서는 분야별 방역 대책과 재난 지원정책, 시민소통 및 행정 지원 및

협력체계구축과 함께 코로나 이후의 시정 운영 전략을 5대 비전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5]. 국립중앙의료원[6]이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7], 김천의료원과 같은 의료기관차원의 백서도 있고 대구광역시의사회 차원의 코로나-19 백서도 있어서 2020년 2월 18일 시작된 대구시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대구시의사회가 활동한 기록을 4개의 파트로 나눠 기록하여[8] 당시 대구의 코로나 확산이 얼마나 심각했었고, 이로 인해 탄생한 D방역(드라이브스루, 확진환자 전화상담, 생활치료 센터)의 과정을 모두 담았다고 한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서는 실무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포스트코로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9].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는 기초지방정부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200일의 기록이 있어서 수원시의 대응기조와 매뉴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제언 등을 담고 있다[10].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동래구에서도 2월 21일 부산광역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위기의 순간들을 잘 대처하고 각 부서와 동별로 총력대응을 통하여 지역 내외 확산을 방지하고 확진자 전원 완치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적극적 행정을 펼친 점은 백서에 첨부된 보도자료들과 미담사례 및 수기들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초기부터 전면적 선제적으로 개입한 것이 특징으로 부산광역시 첫 확진자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래구 코로나-19 초기 대응시 잘한 점으로는 온천교회 교인 1명의 확진자 발생에서 시작된 부산지역 첫 코로나환자 발생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온천교회에 대한 공격적이고 신속한 확진 검사 및 전수조사·자가격리 조치로 온천교회 수련회 참석자를 포함한 교인 34명의 집단 발생 조기에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 하루 만에 1,085명에 달하는 부산광역시 전역에 거주하는 교인들에 대한 성공적인 자가격리 조치 및 격리자

관리로 자칫 대구 신천지와 같은 사태로 확산될 위험한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부산 전역으로의 감염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선별진료소 확진검사자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실시, 자가격리 해제자 추후 관리, 완치자 구청장 격려서한문 및 안전수칙 안내문 발송, 확진자 동선 및 취약지에 대한 방역으로 주민불안 최소화 등이 초기 대응에 있어 잘 된 점으로 사료된다. 구청장 주도하에 전방위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구축은 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확산방지를 위한 비상 방역대책반 운영,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기초역학조사 상황실 운영, 검체 채취자 검사결과 확인 전 자가격리관리 전담반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총력대응 방역 추진, 코로나-19 특별 방역반 운영, 동래구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대응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동래구 코로나-19 초기대응의 아쉬운 점은 감염병 재난위기 현장 매뉴얼의 숙지 부족으로 보건소 내에서는 감염병관리계 위주의 관련 법령 및 매뉴얼 파악만 가능했으며, 구청 각 부서의 역할과 실제현장 대응에 대한 매뉴얼 숙지가 부족하여 확진자 발생 전, 후에 각 부서의 역할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에도 방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코로나-19 비상단계 발령 이후 방역단을 구성하였으나 전례 없는 사태 발생으로 감염병 발생 현장 등에 투입되어 방역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 초기 코로나에 대한 감염 원인(비말 접촉)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염성 물질에 대한 노출이 없는 거리에 불필요한 방역 약품 살포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방역용 보호장비 부족으로 인한 안전 사고 위험이 있었고, 코로나-19 방역장비 부족 및 사용방법이 미숙하여 초기 동래구 확진자 발생 후 관내 코로나-19 긴급 방역을 실시 할 때 분무소독기가 없어 방역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초미립자살포기(ULV)에 대한 지식이 없어 독성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는 분무소독기를 실내에도 자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향후의 과제로는 향후 감염병 대유행시 ‘재난 부서 방역 TF팀’ 가동, 동래구 ‘코로나-19 콜센터’

전담팀 개설, 재난유형별 매뉴얼 숙지 교육 및 모의 훈련 강화,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종교시설 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위드 코로나(with Corona)’시대에 대한 개인 방역 생활화 등이 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서 드는 교훈은 신속한 검사와 치밀한 역학조사로 바이러스의 전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으며 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시민 협조 없이는 방역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래구에서도 2월21일 부산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선제적 대응체계구축으로 위기의 순간들을 잘 대처하고 각 부서와 동별로 총력 대응을 통하여 지역내외 확산을 방지하고 확진자 전수의 완화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적극적 행정을 펼친 점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점으로 볼 수 있다[11].

건강도시는 강력한 행정적 지원과 리더십 아래 조직적 변화와 분야간 협력을 그 특징으로 하는 곳인데[12] 동래구야말로 구청장 이하 전체 행정의 강력한 지원과 리더십 아래 다양한 조직을 비롯한 선제 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각 부서 및 동의 협력을 통해 위기의 순간을 잘 대처해 나온 것은 이러한 특징에 해당되어 보인다. 아울러 전 행정적인 접근을 넘어 주민들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한 점은 전 사회적 접근을 이루어 내어 참여와 협력을 구현한 만큼 앞으로는 사람과 지구가 평화적으로 번영하는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라는 건강도시로서 어떤 감염병이 다시 온다고 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요 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자명한 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위기 극복의 결집된 힘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용할 준비를 하려면 사태의 발생과 대응에 대한

전 과정의 기록을 통해 되짚어보고 유사한 사태가 발생 하였을 때 체계적인 사전대응에 실제 활용 가능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사례보고를 하고자 하였다. 자료 활용은 백서제작을 위한 2020년 1월에서 7월까지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였고 여러 차례의 전화면담이 추가로 시행되었다. 부산시 동래구 코로나-19 지역사회 초기대응의 성공은 구청장의 정치적 헌신과 민관 부문간의 지역사회 차원의 협력을 통해 부산시 최초의 코로나-19 발병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이 된 것으로 사료 된다.

## 참고문헌

1. Cho CH. Blue sky red earth. Seoul, East asia, 2019, p.292 (Korean)
2. Hong YC. Pandemic. Seoul, Forte, 2020, p.254 (Korean)
3. Dongnae-gu of Busan Metropolitan City. COVID-19 White paper appendix. Busan, Dongnae-gu of Busan Metropolitan City. 2020, p.222 (Korean)
4. Dongnae-gu of Busan Metropolitan City. COVID-19 White paper. Busan, Dongnae-gu of Busan Metropolitan City. 2020, p.294 (Korean)
5. Seoul Metropolitan City. Seoul COVID-19 Report. 2020, p.189 (Korean)
6. National Medical Center, White paper on COVID-19 response, 2020, p.355
7. Kye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COVID-19 White paper. Daegu. 2020, p.528 (Korean)
8. Medifonews from: <https://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58032> Accessed on May 27, 2021 (Korean)
9. Korea Healthy Cities Partnership. Intrim report toward post COVID-19 direction. Seoul, Korea Healthy Cities Partnership, 2020, p.224 (Korean)

10. Suwon city. Basic authority Suwon city record of 200 days of response to COVID-19. 2020 p.220 (Korean)
11. Dongnae-gu of Busan Metropolitan City. COVID-19 White paper appendix. Busan, Dongnae-gu of Busan Metropolitan City. 2020, p.222 (Korean)
12.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Healthy cities : good health is good politics : toolkit for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healthy urban development. 2015. Manila : WH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